

지역 매 아리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개소

부안군은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에 맞춰 부안군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고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유관기관장과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을 23일 개최했다.

부안군 치매안심센터는 부안읍 오리정로 12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 300㎡(지상 2층) 규모로 지상 1층에는 상담실·검진실·쉼터·가족카페·프로그램실과 2층에는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위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주요 사업으로는 치매조기검진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지원, 치매환자 쉼터 운영, 지역주민대상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통합적 치매관리 사업을 통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부안군을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 치매안심센터가 어르신들이 언제든 찾아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돼 치매 걱정 없는 부안군 만들기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치매환자에게 큰 힘이 되는 부안군 치매안심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직원 대상 친절교육 정감 있는 민원실 만들기 노력

정읍시가 정감 있고 친절한 민원실 만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관련해 시는 지난 22일 종합민원실 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가졌다.

교육은 민원응대 친절 마인드를 확립하고 정감이 넘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떻게 친절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 교육에서는 민원인 응대 시 잘못된 점과 잘못된 점으로 나눠 사례별로 진행됐다. 특히 공무원이 먼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들 곁으로 다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시는 시청의 얼굴인 종합민원실을 민원인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왕래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월 실시하는 친절 교육을 통해 민원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더욱 나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쾌적하고 편안한 종합민원실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민원실에 공기정장기를 설치했다. 또 평상시 회의용 테이블을 시민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이 간편한 의자로 교체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안전한 수돗물 공급 '총력'

정읍시, 노후상수관로 교체·고압산소관세척·관로 내부탐사 등 수질 확보

정읍시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시는 "시민 모두가 걱정 없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수질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불복지 실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노후상수관로를 교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에 따른 간접평가 결과 2016년 기준 노후관 교체 대상은 51.3km다. 이중 지난해까지 4.4km는 교체했다.

올해는 6.4km를 완료할 예정으로 4.9km(21억원)는 시가, 1.5km는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위탁기관인 K-water에서 맡아 추진한다. 나머지 40.5km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80억원을 투입해 교체할 방침이다.

올해 처음으로 고압산소를 이용한 관세척 공법도 시행한다. 수질 민원 발생 구간인 16개소에 대해서는 관로 내부를 탐사, 결과에 따라 이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압산소 관세척

공법은 고압산소를 물과 함께 주입해 관 내부에 침전과 부착된 이물질이 노후 상수관망을 거치면서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시는 이를 통해 적수(積水) 피해를 예방하고 수돗물 신뢰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의 이러한 노력과 연계해 K-water에서도 깨끗한 수질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선다.

올해만 17억원을 들여 급수 취약구간 개선공사 등 9개소의 시설 개선에 나선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서비스(이하 수돗물 안심확인제)'도 지속 추진한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수용기를 방문, 수도꼭지에 대해 수질 검사 6개 항목을 검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해주는 서비스. 워터코디 2명을 1개조로, 모두 2개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검사 대상을 급수 전 대비 3%(1,340전)에서 5.4%(2,370전)로 확대해 검사의 정밀성을 높이고 있기도 하다. K-water는 이외에도 지방상수도 배수지 13개소에 대한 정기정수(연 2회), 저수조 위생적 관리 등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K-water와 유기적인 체계 구축과 업무 협조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침수예방사업 현장점검 실시

권익현 부안군수가 최근 부안을 침수예방사업 공사현장을 찾아 사업장 안전조치를 요청하는 등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침수예방사업과 함께 부안을 곳곳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상수도현대화, 도시가로망정비, 도시가스, 통신, 한전지중화, 하수관로 사업 등으로 차량 및 보행자, 공사장 주변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사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군은 부안을 시가지의 침수예방을 위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수도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부안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은 성모병원~신운천 구간 1구간과 수리정~보건소~주유차 아파트 앞 2구간, 동부터미널~대림아파트~오케라호텔로 이어지는 3구간으로 크게 분할해 기존 압거를 거치지 않고 신운천에 유입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한국환경공단에 국비 281억원을 포함한 총 404억원의 사업비를 위탁해 우수관로 10.7km를 교체 및 신설하고 도로변 우수받이 952개소를 오는 2021년 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속가능한 지역농촌 문화자산 도약 꿈꾼다

고창군, '농촌영화제 토론회' 열어

'고창농촌영화제'가 지속가능한 지역 농촌 문화자산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22일) 군청 2층 상강실에서 '제2회 고창농촌영화제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고창농촌영화제를 되짚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현 영화감독, 이은상 영화감독, 정삼용 교수(동아방송예술대)를 비롯한 농업인 단체장과 군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선 농부가 직접 만든 영화를 비롯해 청년과 고창주민이 팀을 구성해 10분 내외의 단편영화를 제작 발표한 '고창단편영화의 밤'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대현 감독은 "꾸미지 않은 순박한 촌노의 모습을 통해 순수한 감정을 되찾자는 것이 고창 농촌영화제가 나아가려는 가치"고 평가했다.

이은상 감독은 "콜라와 팝콘 대신 고구마, 옥수수를 썰먹으며 남녀노소 영화를 즐기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장소 접근성을 개선해 많은 이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 프로그래머와 축제 기획자를 구성해 볼거리가 많은 영화제로 발전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제2회 고창농촌영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고창 농촌영화제가 관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영화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아이들 스스로 만드는 놀이공간으로!

고창군, 최초 자연친화적 놀이공간 '하늘땅 모험놀이터' 개소식

고창군 성내면의 하늘땅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기람)가 지난 22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이들과 지역주민, 후원자들과 함께 하늘땅모험놀이터 개소식을 가졌다.

모험놀이터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놀이를 자신이 결정하는 놀이터로 나무를 타고 흙에서 구르고 모닥불도 지필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놀이공간이다.

플라스틱이나 철재 등으로 이뤄진 인공 시설물을 최소화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스스로 놀이를 만들 수 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틀이 아닌 자유로운 공간속에서 아이들의 감성과 호기심을 자극해 자신감은 물론, 창의적인 생각을 키울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흥창표 부회장과 유기상 고창군수를 비롯해 하늘땅 건립추진위원회 등 100여명이 참석해 개소식을 축하했다.



고창군 성내면의 하늘땅지역아동센터가 지난 22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이들과 지역주민, 후원자들과 함께 하늘땅모험놀이터 개소식을 가졌다.

지역아동센터 김기람 센터장은 "이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놀이문화 환경개선사업으로 조성된 하늘땅모험놀이터가 신나게 맘껏 뛰놀 수 있고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의 전

용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관내에는 7개소(읍4, 면3)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초등방과 후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한 돌봄과 교육, 문화체험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정읍시가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합병증 관리를 위한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해 시는 한방요통 관리교실과 뱃살 빼기 프로그램을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한방요통 관리교실에는 총 23회 400명, 뱃살 빼기 프로그램은 총 40회 82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보건소는 요통관리 교실 운영결과 참여자의 40.6%가 통증 감소를 경험했고 만족도는 93.8%로 나타났다.

뱃살 빼기 프로그램은 운동 부족과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당뇨와 고혈압, 심장질환 등에 걸릴 확률이 높은

비만자(비만도 25 이상, 복부둘레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 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에서는 한의약적 비만 관리 교육와 영양교육, 체지방 감량을 위한 근력 강화 운동 등 전문강사의 체계적인 운동 지도, 한방치료(상당과 전기침 치료)가 실시된다.

참여자의 평균 체지방률은 1Kg, 평균 허리둘레는 3.4cm 감소했으며 프로그램 만족도는 91%로 나타났다.

보건소는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과 건강관리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nd a smaller image of a gift se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also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